겨울방학 '코앞'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햄버거 비, 아이스크림 눈, 스파게티 폭풍 등 상상할수 없는 음식폭탄.

겨울 방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은 주디 바렛이 글을 쓰고, 남편 론 바렛이 그림을 그린 동명의 베스트셀러 동화에서 영감을 얻은 가족용 3D 애니메이션이다. 모두 1억 달러가 투입된 작품으로 미국 개봉 당시 주말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사시사철 정어리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한 플린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을 뱉어내는 기계를 만들어내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기면서 하늘에서 햄버거 비, 아이스크림 눈, 스파게티 폭풍 등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앨빈과 슈퍼밴드 2'는 전편 '앨빈과 슈퍼밴드'에서 천부적인 끼와 노래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엘빈, 사이먼, 테오도르 칩멍크 3인방의 좌충우돌 학교 생활을 그린 영화다.

칩멍크 삼총사가 학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자리를 놓고 섹시 걸그룹 치페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화끈한 음악 전쟁'을 치룬다는 내용이 유쾌하다. 흥겨운 음악과 유쾌한 유머가 관람 포인트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추억 속의 만화 주인공 '아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환'은 일본 만화의 거장 데츠카 오사무의 '아톰'이 할리우드 기술과 만나 탄생한 3D 애니메이션이다. 목소리 주인공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어거스트 러쉬'의 프레디 하이모어와 니콜라스 케이지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맡았다.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유명 스타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 아톰 역은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민 남동생' 유승호가 맡았으며 탠마박사 역으로는 조민기가 출연한다.

또 개그맨 유세훈과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어린 덕만 역을 맡았던 남지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메트로 시티 최고의 과학자, 텐마 박사는 로봇 시험 가동 중 사고로 아들 토비를 잃는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던 텐마 박사는 토비의 DNA를 이식해 인간의 감성과 하이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최고의 로봇 아스트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스트로의 존재를 알게 된 독재자 스톤 총리는 아스트로의 생명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공격을 시작한다.

'마이마이신코 이야기'(10일 개봉)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피아노의 숲' '썸머 워즈'로 명성을 얻은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매드 하우스가 선보이는 감성 애니메이션이다.

유난히 비죽 솟은 앞머리를 '마이마이'라 부르는 산골 소녀 신코가 수줍음 많은 전학생 키이코와 친구가 되어 만들어가는 잊지 못할 추억을 그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환'=추억 속의 만화 영화 주인공 아톰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

▼'마이마이신코 이야기'=산골 소녀 신코와 전학온 학생간에 잊지못할 추억 만들기.

▼'앨빈과 슈퍼밴드 2'=천부적인 끼와 노래로 최고의 스타자리를 놓고 벌이는 음악전쟁.

'애니' 개봉박두

새 영 화 시크릿

살인사건 현장에서 아내의 흔적 발견?

살인 사건 현장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한 형사는 어떤 기분일까. 강력한 살인 사건 용의자로 떠오른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물이다.

악명 높은 조직의 2인자가 살해당한 현장을 찾은 형사 성열은 그곳에 남겨진 증거물들이 아내 지연의

것임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최형사의 눈을 피해 증거를 없애지만 살해당한 동철의 형인 보스 재칼과 결정적인 증거물을 갖고 있다며 협박 전화를 걸어오는 의문의 전화가 성열을 점점 옥죈다.

김윤진·박희순 주연의 '세븐 데이즈' 각본을 썼던 윤재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시나리오도 직접 썼다.

배우들도 눈에 띈다. 코믹 연기의 일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혈의 누'를 통해 선굵은 연기를 보여준 차승원과 결혼 후 첫 작품을 선보이는 송윤아가 부부로 출연한다.

또 '황진이'의 류승룡, '해운대'의 김인권, '화려한 휴가'의 박원상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